

한국판 동성애자/양성애자 긍정적 정체성 척도 타당화*

장 지 윤

안 현 의†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의 긍정적 정체성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Riggel, Mohr, Rostosky, Fingerhut, & Balsam(2014)이 개발한 동성애자/양성애자 긍정적 정체성 척도(Lesbian, Gay, Bisexual Positive Identity Measure; LGB-PIM)를 국내 20세 이상의 남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를 대상으로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원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한국판 척도를 제작하고 요인구조를 확인하였으며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긍정적 정체성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는 척도를 번안, 타당화하여 국내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를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부정적 정체성을 통해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측정하고 관련 변인과의 연구에 있어서도 부정적 측면에 치우쳐 있었으나, 긍정적 정체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국내에 도입됨으로써 성소수자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본 척도는 긍정적 정체성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상담 실제에서도 내담자의 강점을 발견하고 자원을 활용하는 등 여러 장면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동성애자, 양성애자, 긍정적 정체성, 동성애, 성소수자, LGBT

* 본 연구는 장지윤(2016)의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판 동성애자/양성애자 긍정적 정체성 척도 타당화’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안현의,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03760) 서울시 서대문구 여화여대길 52

Tel : 02-3277-2643, E-mail : ahn12@ewha.ac.kr

동성애는 역사적으로 어느 문화에서나 존재해 온 인간관계의 현상 중 하나로, 미국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는 성적 지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Harrison, 2003). 따라서 동성애는 정신장애나 행동장애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1973년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SM-III)에서 공식적으로 삭제되었다. 미국 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역시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다는 결의를 지지하며 동성애가 정신질환이 아님을 재확인하였다(Schneider, Brown, & Glassgold, 2002). 그러나 동성애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 인식은 부정적인 편이다. 우리나라에서 성소수자들을 그저 다른 형태의 삶을 사는 사람들로 인식하기에는 아직까지 고정관념과 편견의 시선이 강하다(서영석, 이정림, 차주환, 2006). 총 3,159명의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1.5%는 직접 차별이나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87%는 성소수자를 향한 증오와 혐오 발언을 접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나영정 외, 2014). 과거에는 동성애자가 정신적 어려움을 더욱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결과가 동성애가 정신질환이나 성격적 결함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으나, 동성애자들의 심리적 적응문제는 정신병리의 지표가 아니라 사회적 억압과 차별의 결과이다(우사라, 유성경, 2017; Phillips, Ingram, Smith, & Mindes, 2003). 이러한 사회적 시선은 동성애자들이 성적 지향을 자기 정체감으로 통합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며,

따라서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은 사회적 낙인과 소외에 맞서 긍정적 정체성을 발달시켜야 하는 도전을 마주하게 된다(김은경, 권정혜, 2004; Mohr & Kendra, 2011).

성소수자 연구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소수자란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및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 등의 성 정체성(sexual identity)과 관련된 소수자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이다. 성적 지향은 한 개인이 어떤 성별에 성적, 낭만적으로 끌리는지를 의미하며, 자신과 같은 성별에 끌리는 동성애, 자신과 다른 성별에 끌리는 이성애, 두 성별 모두에 끌리는 양성애를 포함한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1). 또한 성별 정체성은 자신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혹은 트랜스젠더인지에 대한 감각을 의미하며, 한 개인의 성별 정체성이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인은 트랜스섹슈얼 혹은 다른 트랜스젠더 범주로 정체화할 수 있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1). 이러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각각 독립적인 축으로 간주된다(나영정, 정현희, 2015).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이면서 이성애자이거나 트랜스젠더이면서 동성애자인 경우가 각각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 개인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각 축을 통해 둘 이상의 성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서구에서 성소수자 집단은 LGBT 또는 LGBTI라는 용어로 흔히 표현되며, 이는 여성 동성애자(Lesbian), 남성 동성애자(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간성(Intersex)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졌다. 이전까지 국내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동성애자 집단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내 연

구에서 양성애자는 제외된 경우가 많았다(김은경, 권정혜, 2004; 백은정, 유영권, 2004; 신승배, 2013). 현재는 양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담론 형성이 점차 발생하는 단계이고, 주로 사회학 및 여성학 분야에서 성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회 인식을 다루는 맥락으로 양성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박은실, 2010; 해밀튼, 2013).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LGB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성애자 뿐 아니라 모든 성소수자 집단이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되고 있다(김진이, 2016; 이호림, 2015). 본 연구에서는 성소수자 집단의 하위집단 중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며 성적지향이라는 한 축에 포함되는 동성애와 양성애(LGB)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성소수자 정체성에 대한 초기의 연구는 주로 정체성 발달과 관련하여 진행되었다. 그 중 소수자 정체성 발달 과정을 6단계로 제시한 Cass(1979)의 이론과 4단계로 제시한 Troiden(1989)의 이론이 대표적이다. Brady와 Busse(1994)는 Cass의 이론을 토대로 게이 정체성 척도를 통해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이론 및 척도는 스스로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나 경험의 측면이 아닌 성소수자 정체성에 대한 개인의 수용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Riggle, Mohr, Rostosky, Fingerhut, & Balsam, 2014).

근래에 성소수자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척도들은 주로 내재화된 동성애혐오, 내재화된 성적 낙인, 내재화된 동성애부정 등의 구성개념을 포함하며 정체성과 관련한 스트레스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 들어, Lingiardi, Baiocco & Nardelli(2012)가 개발한 내재화된 성적 낙인 척도(MISS-LG)는 정체성에 대한 불편감, 타인에게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에 대한 불편감, 성소수자 간의 사랑에 대한 부정적 태도 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임민경(2014)은 이 척도를 국내 남녀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타당화 하였으며 우울, 불안 등 부정적 정신건강 지표들과의 관련을 확인하였다. Martin과 Dean(1987)이 개발한 내재화된 동성애혐오 척도(IHP)는 국내에서 타당화 되지는 않았지만 문항 수가 적고 남녀 모두에게 사용 가능하여 가장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동성애자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대다수의 연구가 우울과 자살 등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박수현, 2010; 박의주, 2012; 이호림, 2015).

성소수자 정체성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는 척도들도 주로 부정적 맥락의 질문들을 사용해왔다. Mohr와 Fassinger(2000)의 레즈비언, 게이 정체성 척도(LGIS)는 레즈비언과 게이 정체성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과 감정들을 반영하였으며, 수용 걱정, 은닉 동기, 정체성 불확실, 내재화된 동성애부정, 고된 과정, 정체성 우월의 6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된다. 이후 정체성의 긍정적 측면을 하위척도로 포함시킨 척도들도 개발되었는데, Mayfield(2001)의 내재화된 동성애부정 척도(IHI)에 정체성 긍정 하위척도가 포함되었고, Mohr와 Kendra(2011)는 레즈비언, 게이 정체성 척도(LGIS)에 양성애자를 포함시킨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정체성 척도(LGBIS)의 개정판에서 3문항으로 구성된 정체성 긍정 하위 척도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척도들은 성소수자 긍정적 정체성의 다차원적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Riggle et al., 201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소수자의 정체성에 대한 기존의 여러 이론과 척도들에서 성소수자 정체성의 긍정적 측면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다수의 성소수자 정체성 척도들은 부정적 측면에 대한 질문들을 사용하여 정체성을 평가하였는데 이는 정체성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결여가 곧 긍정적 정체성을 가지는 것과 동일하다는 가정이 전제된 것이다(Riggle et al., 2014). 그러나 ‘긍정적’인 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것의 결여가 아니며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긍정적 지표는 부정적 지표와 구별되는 독특한 정서적 요소를 가진다(Reich, Zautra, & David, 2003). 따라서 정체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긍정적 정체성은 부정적 정체성과 분리되어 측정되어야 한다(Bauer, McAdams, & Pals, 2008; Riggle et al., 2014).

Riggle과 Rostosky(2012)는 경험적 질적 연구를 통해 성소수자로서 긍정적 정체성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삶의 8가지 주제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주제들은 ‘성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것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점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성소수자 1,000명 이상의 답변들을 요약함으로써 도출되었고, 이를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성소수자 정체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성소수자의 긍정적 정체성에 대한 다차원적 척도를 만드는 시작점이 되었다(Riggle et al., 2014; Riggle & Mohr, 2015). 본 연구에서 타당화하고자 하는 동성애자/양성애자 긍정적 정체성 척도(Lesbian, Gay, and Bisexual Positive Identity Measure: LGB-PIM)는 Riggle 등(2014)이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의 긍정적 정체성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Riggle과 Rostosky(2012)의 경험적 질적 연구에서 확인된 8가지 긍정적 정체성 주제들을 토대로 하였다. ‘자각(Self-awareness)’, ‘진실성(Authenticity)’, ‘소속감(Community)’, ‘친밀감(Intimacy)’, ‘사회 정

의(Social Justice)’의 5개 하위척도로 구성되며, 각 5문항씩 총 25문항을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고 높은 점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더 긍정적인 관점을 나타낸다.

자각 하위척도는 ‘나의 동성애자/양성애자 정체성은 나의 감정을 더 잘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된다’ 등의 문항을 통해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이 스스로에 대한 자각과 통찰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측면에 대해 측정하며, 진실성 하위척도는 ‘나는 나의 동성애자/양성애자 정체성에 대해 스스로에게 솔직하다’ 등의 문항을 통해 성소수자라는 자기 자신에 대해 얼마나 수용하고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 측정한다. 소속감 하위척도는 ‘나는 동성애자/양성애자 공동체로부터 지지받는다’고 느낀다’ 등의 문항을 통해 성소수자 공동체에 얼마나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끼며 공동체 내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지에 대해 측정하고, 친밀감 하위척도는 ‘나의 동성애자/양성애자 정체성은 애인과 더 가까워지는데 도움이 된다’ 등의 문항을 통해 성소수자 정체성을 가짐으로써 연애관계에서 얼마나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지에 대해 측정하며, 마지막으로 사회정의 하위척도는 ‘동성애자/양성애자로서의 경험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등의 문항을 통해 성소수자로서의 경험이 다른 소수자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사회정의에 관심을 가지도록 돕는 측면에 대해 측정한다.

Riggle 등(2014)의 연구에서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7-.91이었으며, 긍정적 정체성은 긍정적 웰빙의 지표인 삶의 만족을 예측하고 기존에 사용되던 정체성 척도인 부정적 정체성의 삶의 만족에 대한 설명력을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척도는 기존의 성소수자 정

체성 관련 척도들이 측정하지 못했던 긍정적 정체성의 측면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고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를 모두 포함하는 척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iggle 등(2014)이 개발한 Lesbian, Gay, Bisexual Positive Identity Measure(LGB-PIM)를 한국의 동성애자/양성애자(LGB) 표본을 대상으로 타당화하여 측정의 타당성을 높이고 연구의 기초를 다지고자 한다. 본 타당화 연구는 국내 성소수자의 긍정적 정체성 및 긍정적 정신건강에 대한 향후의 연구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상담 실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 법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설문지 조사 방법을 통해 실시되었다.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를 두 집단에 무선할당하여 각각 연구 1과 연구 2에 사용하였다. 연구 1에서는 먼저 문항 분석을 통해 문항의 양호도를 검증하고, 한국판 동성애자/양성애자 긍정적 정체성 척도(K-LGB-PIM)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1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2에서는 문항의 양호도를 검증한 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어 기존의 긍정적 정체성 관련 척도들과의 상관 분석을 통해 준거관련타당도 중 공준타당도(concurrent validity)를 확인하였으며 정신건강 관련 척도와 회귀 분석을 통해 예측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원척도 번안

우선적으로 원척도를 개발한 원저자 중 한 명인 Ellen D. B. Riggle에게 이메일을 통해 척도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고, 원척도의 문항을 번안하여 예비척도를 완성하였다. 연구자와 영어-한국어 이중 언어가 가능한 상담 전공 석사과정 2인이 함께 1차 번역을 하였으며 성소수자 인권 동아리 및 성소수자 집단 구성원에게 자문을 구하여 설문 대상자들에게 친숙한 단어와 문장으로 수정하였다. 완성된 1차 번역본을 토대로 미국에서 장기 거주 경험이 있는 상담전공 교수 1인의 검토와 자문을 거쳐 문항을 확정하였다. 원의미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예비 척도 문항을 구성하였다.

원문항 중 'LGBT'라는 단어를 번안함에 있어, 'LGBT'는 서구 문화권에서 Lesbian, Gay, Bisexual 그리고 Transgender 각각을 의미함과 동시에 성소수자 집단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LGBT'라는 단어가 아직은 LGBT 본인들에게도 친숙하지 않다는 성소수자 집단 구성원의 자문 내용에 따라 다른 단어로 대체하였다. 이 때, '성소수자'라는 단어는 소수자로서 부정적인 느낌을 내포할 수 있다는 점과 연구에서 트랜스젠더는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문 대상자들이 본인을 표현하기에 가장 가깝고 객관적이라고 판단되는 단어인 '동성애자/양성애자'를 사용하였다. 전체적인 번안 과정에서는 영어식 표현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술어를 한국식 표현으로 의역하였으며, 심리학적 표현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self-aware'와 'inner peace'의 경우 '자각'과 '내면의 평화' 대신 각각 '나 자신에 대해 알아차리다', '마음

의 갈등이 없다'로 의역하였다.

원척도의 개발자는 문항을 각 하위요인별로 제시하며 설문에 이용할 경우 순서를 무작위로 섞도록 제안하였다. 따라서 엑셀 프로그램의 난수 생성 함수를 사용하여 문항의 순서를 무작위로 섞어 재구성하였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의 20세 이상 남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초점은 성별 정체성이 아닌 성적 지향이기 때문에, 트랜스젠더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여 젠더 정체성의 문제가 연구에 혼입되는 것을 통제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오프라인의 눈팅이 표집과 인터넷 커뮤니티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온라인 홍보를 통해 모집되었다. 성소수자 인권 단체 및 각 대학 내 성소수자 인권 동아리에 메일을 보내 참여 및 홍보를 요청하였고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게시판 및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참여자들은 웹 링크를 통해 온라인 설문지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안내되었으며 연구 참여 안내문을 읽고 동의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설문에는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설문을 끝까지 완료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보상이 지급되었다.

설문 응답자는 총 545명이었으며 이 중 설문을 끝까지 완료하지 않은 경우(129명), 트랜스젠더인 경우(4명), 청소년인 경우(1명)를 제외한 411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성적지향 관련 변인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86명(20.9%), 여성이 325명(79.1%)으로 여성 참여자

가 월등히 많았으며, 연령은 20-24세가 245명(59.6%), 25-29세가 126명(30.7%), 30-34세가 32명(7.8%), 35-39세가 4명(1.0%), 40-44세가 2명(0.5%), 45-50세가 1명(0.2%), 50세 이상이 1명(0.2%)으로 20대 참여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최종학력은 고졸이 161명(39.2%), 전문대졸이 23명(5.6%), 대졸이 206명(50.1%), 대학원졸 이상이 21명(5.1%)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성적지향은 동성애가 236명(57.4%), 양성애가 175명(42.6%)이었고, 자신의 성적지향에 대해 자각한 나이는 평균 15.6세($SD = 3.86$)로 나타났다.

측정 도구

동성애자/양성애자 정체성 척도(The Lesbian, Gay, and Bisexual Identity Scale; LGBIS)

동성애자/양성애자 정체성 척도는 Mohr와 Kendra(2011)가 동성애자/양성애자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27문항의 6점 리커트 척도이다. '수용 걱정(Acceptance Concern)', '은닉 동기(Concealment Motivation)', '정체성 불확실(Identity Uncertainty)', '내재화된 동성애부정(Internalized Homonegativity)', '고된 과정(Difficult Process)', '정체성 우월(Identity Superiority)', '정체성 긍정(Identity Affirmation)', '정체성 중심(Identity Centrality)'의 총 8개 하위척도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김성연(2013)이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변안된 LGB-PIM의 문항의 어휘와 비슷하고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모두를 포함하도록 수정되었다. K-LGB-PIM의 준거관련타당도 확인을 위해 8개 하위 척도 중 '정체성 우월'과 '정체성 중심'을 제외한 나머지 6개를 사용하였다. More와 Kendra(2011)

는 정체성 긍정 하위 척도가 내재화된 동성애 부정 하위척도와 강한 부적 연관이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Riggle 등(2014)은 부정적 정체성 하위척도로 ‘수용 걱정’, ‘은닉 동기’, ‘정체성 불확실’, ‘내재화된 동성애 부정’, ‘고된 과정’의 5가지 하위척도를 제시하였다. 김성연(2013)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70-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65-.84로 나타났다.

진실성 척도(Authenticity Scale; AS)

진실성 척도는 Wood, Linley, Maltby, Baliousis & Joseph(2008)이 개발하였으며 ‘자기 소외(Self-Alienation)’, ‘진실한 삶(Authentic Living)’, ‘외부 영향 수용(Accepting External Influence)’의 3요인 구조로 각 4문항씩 총 12문항으로 구성되고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향숙(2011)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K-LGB-PIM의 준거관련타당도 확인을 위해 사용하였다. 이향숙(2011)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5로 나타났다.

한국판 사회정체화 척도(Social Identification Scale; SIS)

한국판 사회정체화 척도는 성한기(2001)가 개발하였으며, 한 집단에 소속되어 그 집단에 대한 멤버십을 자기개념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측정한다. ‘집단자기존중감(Group Self-esteem)’, ‘자기범주화(Self-categorization)’, ‘집단개입(Commitment to Group)’의 3요인으로 구성되며 19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의 ‘이 집단’을 ‘동성애자/양성애자 집단’으로 대체하여 응답하도록 설문지 상에서 안내하였으며 K-LGB-PIM의 준거관련타당도 확인을 위해 사용하였다. 성한기

(2001)의 연구에서 3개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78-84였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에 대한 내적 합치도는 .87로 나타났다.

정신적 웰빙 척도(Mental Health Continuum Short Form; MHC-SF)

정신적 웰빙 척도는 Keyes(2002)의 행복 이론에 따라 정신적 웰빙의 수준을 측정하는 14문항의 6점 리커트 척도로 ‘정서적 웰빙(Emotional Well-being)’, ‘사회적 웰빙(Social Well-being)’, ‘심리적 웰빙(Psychological Well-being)’의 3요인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임영진, 고영진, 신희천, 조용래(2012)가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K-LGB-PIM의 예측타당도 검증을 위해 사용하였다. 임영진 등(2012)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1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K-LGB-PIM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준거관련타당도 중 공준타당도(concurrent validity)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사한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진실성 척도, 사회정체화 척도, 동성애자/양성애자 정체성 척도(LGBIS)의 정체성 긍정 하위척도 및 부정적 정체성 하위척도들과 K-LGB-PIM의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예측타당도(predictive validity)를 확인하기 위해 K-LGB-PIM을 독립변인, 정신적 웰빙 척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통계분석에는 AMOS 18.0 프로그램

램을, 그 외의 통계분석에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결 과

연구 1

연구1 문항분석

예비척도 문항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 표본 중 205명을 무선표집하여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하위요인 총점간 상관, 문항제거 시 내적합치도를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첫째, 문항의 평균이 1.5 미만이거나 6.5를 초과하는 경우와 문항의 표준편차가 0.7 이하인 경우를 문항의 양호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탁진국, 2007). 둘째, 하위요인별 문항 간 상관이 .8 이상이거나 .2 이하인 경우, 문항-하위요인 총점 간 상관은 .3 이하인 경우 양호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였다(김남걸, 2001). 셋째, 문항제거 시 내적합치도가 상승하는 경우 해당 문항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예비척도의 문항별 기술통계치와 내적합치도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문항별 기술통계 결과 각 문항의 평균은 3.97-6.57, 표준편차는 0.94-1.88로 모든 문항의 표준편차는 양호한 수준이나 LGB13(6.57)의 평균이 6.5보다 약간 높은 값을 나타냈다. 이는 LGB13의 내용이 '동성애자/양성애자 인권을 지지하는 것은 중요하다'로, 긍정적 정체성의 수준과 상관없이 대다수의 성소수자들이 인지적으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양호도 기준을 완벽히 충족시키

지는 못하였으나 기준치와의 차이가 근소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하위요인별 문항 간 상관은 .31-.77로 .8 이상이거나 .2 이하인 문항이 없었으며 문항-하위요인 총점 간 상관은 모든 문항이 .3보다 높았다.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는 .81-.87로 각 문항들이 각 하위요인을 측정하기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항 제거 시 내적합치도를 보면, LGB1(.83→.87)을 제거할 경우 내적합치도가 .0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LGB1을 제거하지 않아도 이미 내적합치도가 .83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기 때문에 문항을 삭제하지 않고 원칙도의 문항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앞서 문항의 양호도를 살펴본 결과에 따라 삭제된 문항 없이 25개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KMO 표본 적합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 자료의 KMO 표본 적합도는 .892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유의확률은 .000으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은 공통요인분석 방법 중 주축 요인추출법(principle axis factoring)을 사용하였다. SPSS 프로그램의 요인분석에서는 공통분의 추정치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1회 분석에서 다중상관관계치(SMC)를 사용하고 이것을 반복 추정하는 방법이 고정되어 있다(이순목, 2000). 요인수의 결정에는 스크리(scree) 검사, 누적분산비율, 해석가능성 등이 고려되었다. 누적분산비율은 요인별 고유치가 차지하는 비율을 합한 것으로, 누적분산비율이 75% 이상인 곳에서 요인수를 결정

표 1. 연구 1의 기술통계치 및 내적합치도

하위요인 (Cronbach's α)	문항번호	평균	표준편차	요인별 문항- 총점 상관	문항 제거 시 내적합치도
자각 (.82)	LGB6	6.00	1.24	.65	.78
	LGB9	5.21	1.44	.61	.79
	LGB14	6.13	1.14	.67	.78
	LGB17	5.52	1.43	.62	.79
	LGB22	5.01	1.66	.59	.80
진실성 (.83)	LGB1	3.97	1.88	.43	.87
	LGB2	5.56	1.57	.72	.77
	LGB12	6.01	1.32	.74	.77
	LGB21	6.20	1.18	.74	.78
	LGB24	5.22	1.86	.66	.79
소속감 (.87)	LGB4	4.77	1.77	.59	.86
	LGB8	4.37	1.77	.64	.85
	LGB10	4.80	1.64	.72	.83
	LGB16	4.92	1.78	.76	.82
	LGB19	5.03	1.63	.74	.82
친밀감 (.87)	LGB3	5.36	1.79	.63	.86
	LGB5	5.24	1.72	.78	.82
	LGB11	5.27	1.61	.71	.84
	LGB18	5.36	1.53	.72	.84
	LGB23	5.22	1.60	.67	.85
사회정의 (.81)	LGB7	5.75	1.57	.61	.78
	LGB13	6.57	0.94	.57	.79
	LGB15	5.88	1.18	.61	.77
	LGB20	5.64	1.44	.61	.78
	LGB25	5.89	1.28	.67	.76

한다(Gorsuch, 1983). 그러나 실제 SPSS로 요인 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SAS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누적분산비율이 낮게 나와 75%의 기

준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므로, 누적분산비율이 어느 정도 큰 비중을 차지하면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론적 근거를 가지는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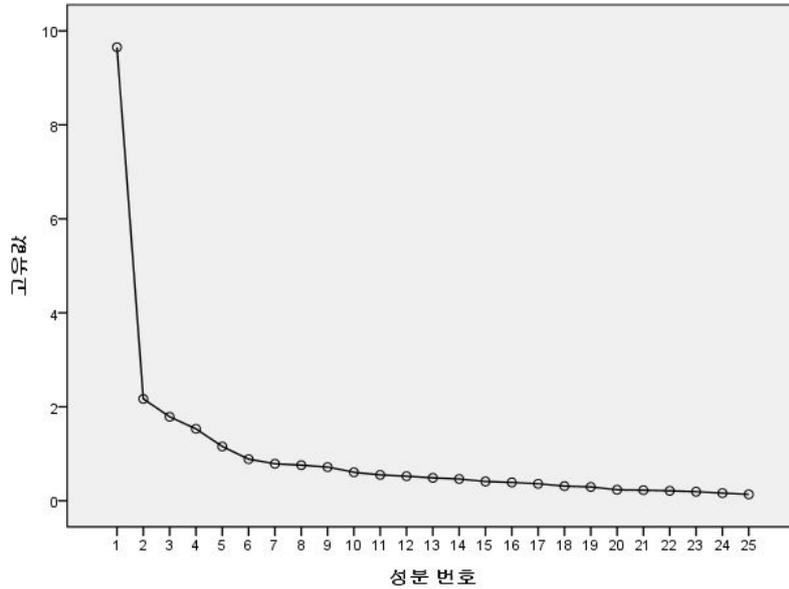


그림 1. 스크리테스트 결과

인 수로 결정할 수 있다(엄명용, 조성우, 2005). 본 척도는 선행 질적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긍정적 정체성의 5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문항을 개발하였으므로 해석가능성을 고려하면 요인의 수는 5개가 적절하다. 또한 5개의 요인이 차지하는 누적분산비율이 약 65%로 전체 분산 중 많은 영역을 차지하며, 그림 1의 스크리테스트 결과에서 요인 6부터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요인의 수는 5개로 결정하였다. 선행 척도개발 연구에서도 상관이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하위요인간 상관이 .36-.59로 나타났으므로 요인구조 행렬은 PROMAX 사각회전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예비척도의 요인구조는 원척도와 동일하게 5요인 구조로 나타났으며 모든 문항이 각 요인에 적절하게 적재되었다. 그러나 LGB1의 공통성이 .307로 낮아 사

제를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LGB1은 ‘나는 나의 동성애자/양성애자 정체성을 솔직하게 남들에게 얘기할 수 있다.’로, 문항분석에서 다른 문항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으며 진실성 하위 요인의 내적 합치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진실성 하위 요인 내 다른 문항들이 개인 심리 내에서의 진실성에 대한 것인 반면 LGB1의 경우 사회적인 진실성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소수자 정체성에 대해 스스로에게 진실한 것과 별개로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에 대하여는 서구 문화권과 비교할 때 국내의 성소수자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LGB1을 삭제하고 24문항으로 최종 요인구조 행렬을 다시 산출하였다. 그 결과 이전 분석과 동일하게 5요인으로 묶여졌으며 요인1-5가 각각 소속감(Community), 진실성

(Authenticity), 사회정의(Social Justice), 친밀감(Intimacy), 자각(Self-aware)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LGB1을 삭제한 총 24개 문항을 한국판 동성애자/양성애자 긍정적 정체성 척도(K-LGB-PIM)로 결정하였다. 회전된 최종요인행렬을 표 2에, 최종 문항은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2. 예비척도의 요인행렬

문항	요인1 (소속감)	요인2 (진실성)	요인3 (사회정의)	요인4 (친밀감)	요인5 (자각)	공통성
LGB19	.936	-.126	-.173	-.065	.204	.770
LGB16	.835	-.114	.043	.087	.036	.747
LGB10	.767	-.029	.167	.025	-.074	.677
LGB4	.707	.176	-.050	-.068	.010	.566
LGB8	.685	.043	.055	.081	-.045	.581
LGB21	-.125	.919	.026	-.090	.129	.794
LGB2	.101	.878	-.206	-.065	.064	.712
LGB12	-.155	.809	-.003	.087	.174	.753
LGB24	.043	.772	.128	.103	-.233	.706
LGB7	.129	-.051	.818	-.173	-.072	.621
LGB13	-.117	.105	.779	.042	-.107	.572
LGB15	-.029	-.129	.753	.064	.118	.587
LGB25	.008	.108	.734	-.060	.088	.666
LGB20	-.012	-.141	.682	.088	.170	.545
LGB11	-.069	-.125	-.009	.898	.177	.782
LGB18	-.068	-.091	-.068	.873	.260	.815
LGB5	.154	.095	-.009	.787	-.136	.768
LGB23	.053	.283	.041	.565	-.058	.600
LGB3	.210	.358	.041	.441	-.184	.612
LGB17	.004	-.072	-.152	.207	.835	.724
LGB14	-.060	.076	.163	.090	.694	.692
LGB9	.142	-.036	.204	-.058	.598	.552
LGB6	.141	.438	-.038	-.158	.567	.679
LGB22	.057	.173	.213	.018	.446	.508

표 3. 한국판 동성애자/양성애자 긍정적 정체성 척도(K-LGB-PIM)의 최종 문항

하위요인	문항	문항내용
자각	LGB6	나의 동성애자/양성애자 정체성은 나 자신에 대해 더 잘 알아차리게 한다.
	LGB9	나의 동성애자/양성애자 정체성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잘 이해하게 한다.
	LGB14	나의 동성애자/양성애자 정체성을 통해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LGB17	나의 동성애자/양성애자 정체성은 나의 감정을 더 잘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된다.
	LGB22	나의 동성애자/양성애자 정체성은 내가 나의 강점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진실성	LGB2	나는 나의 동성애자/양성애자 정체성에 대해 편안하게 느낀다.
	LGB12	나는 나의 동성애자/양성애자 정체성에 대해 스스로에게 솔직하다.
	LGB21	나는 나의 동성애자/양성애자 정체성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
	LGB24	나는 나의 동성애자/양성애자 정체성에 대해 마음의 갈등이 없다.
소속감	LGB4	동성애자/양성애자 공동체에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기회가 많다.
	LGB8	나는 동성애자/양성애자 공동체 안에서 존재감을 잘 드러낸다.
	LGB10	나는 동성애자/양성애자 공동체로부터 지지받는다고 느낀다.
	LGB16	나는 동성애자/양성애자 공동체에서 소속감을 느낀다.
	LGB19	나는 동성애자/양성애자 공동체에서 유대감을 느낀다.
친밀감	LGB3	동성애자/양성애자 정체성을 인정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사람을 사귄 수 있게 되었다.
	LGB5	나의 동성애자/양성애자 정체성은 애인과 더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된다.
	LGB11	나의 동성애자/양성애자 정체성은 성적인 부분에서 애인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LGB18	나의 동성애자/양성애자 정체성은 내가 애인과 더 잘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회정의	LGB23	동성애자/양성애자 정체성을 인정함으로써 나의 성생활이 더 만족스러워졌다.
	LGB7	내가 동성애자/양성애자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에 더 민감하다.
	LGB13	동성애자/양성애자 인권을 지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LGB15	동성애자/양성애자 관련 이슈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은 중요하다.
	LGB20	내가 동성애자/양성애자이기 때문에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더 존중한다.
LGB25	동성애자/양성애자로서의 경험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연구 2

연구 2 문항분석

연구 1의 집단과 독립적인 206명의 표본을 사용하여 24개 문항에 대한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요인

별 문항-총점간 상관, 문항 제거 시 내적합치도를 검토하였으며,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양호도 적합기준은 연구 1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각 문항의 평균은 4.09-6.56, 표준편차는 0.74-1.88로 모든 문항의 표준편차는 양호한 수준이고 연구 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LGB13(6.56)의 평균이 6.5보다 약간 높은 값을

표 4. 연구 2의 기술통계치 및 내적합치도

하위요인 (Cronbach's α)	문항번호	평균	표준편차	요인별 문항- 총점 상관	문항 제거 시 내적합치도
자각 (.84)	LGB6	5.86	1.32	.70	.79
	LGB9	5.09	1.47	.54	.83
	LGB14	5.98	1.14	.73	.79
	LGB17	5.27	1.49	.66	.80
	LGB22	4.96	1.66	.62	.81
진실성 (.87)	LGB2	5.48	1.51	.77	.81
	LGB12	5.81	1.37	.70	.84
	LGB21	6.10	1.31	.77	.82
	LGB24	5.12	1.88	.70	.86
소속감 (.89)	LGB4	4.52	1.70	.63	.89
	LGB8	4.09	1.76	.70	.87
	LGB10	4.74	1.54	.74	.86
	LGB16	4.70	1.79	.80	.85
	LGB19	4.88	1.67	.79	.85
친밀감 (.89)	LGB3	5.28	1.88	.72	.87
	LGB5	5.17	1.60	.77	.86
	LGB11	5.00	1.59	.74	.86
	LGB18	5.02	1.52	.70	.87
	LGB23	5.11	1.69	.74	.86
사회정의 (.77)	LGB7	5.68	1.57	.54	.73
	LGB13	6.56	0.74	.49	.76
	LGB15	5.67	1.28	.54	.73
	LGB20	5.26	1.60	.56	.73
	LGB25	5.68	1.32	.67	.68

나타냈으나 양호도 기준을 벗어나는 정도가 미미한 수준으로 보이므로 삭제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위요인별 문항 간 상관을 살펴본 결과, LGB16과 LGB19가 .82로 높은 상관을 보

였다. 그러나 두 문항은 ‘나는 동성애자/양성애자 공동체에서 소속감을 느낀다’와 ‘나는 동성애자/양성애자 공동체에서 유대감을 느낀다’로 각 문항 선정에 이론적 근거가 있으므로

표 5. 한국판 동성애자/양성애자 긍정적 정체성 척도 하위요인 간 상관

	자각	진실성	소속감	친밀감	사회정의
자각	1				
진실성	.58**	1			
소속감	.51**	.41**	1		
친밀감	.59**	.60**	.47**	1	
사회정의	.60**	.42**	.43**	.46**	1

주. ** $p < .01$

삭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문항-하위요인 총점 간 상관은 모든 문항이 .3보다 높았다.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는 .77-.89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문항 제거 시 내적합치도 또한 양호하였다.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는 .41-.60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이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자각과 사회정의, 진실성과 친밀감이 .60으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한국판 동성애자/양성애자 긍정적 정체성 척도(K-LGB-PIM)에 원척도와 같은 5요인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정법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최대우도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변량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먼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항들의 왜도와 첨도를 검토하였다. 왜도의 절댓값이 2 이하, 첨도의 절댓값이 7 이하일 때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자료의 왜도는 -1.835에서 -.047, 첨도는 -1.309에서 -.992로 기준치를 만족하였다(West, Finch, & Curran, 1995).

다음으로 모델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MIN/DF, CFI, SRMR, RMSEA를 참조하였다. CMIN/DF 값은 3 이하인 경우, SRMR 값은 .08 이하인 경우,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CFI는 .95 이상인 경우 우수, .90 이상인 경우 양호, .90 이하인 경우 나쁨으로 판단된다(Hu & Bentler, 1999). RMSEA 값은 .05 이하인 경우 우수, .08 이하인 경우 양호, .10 이하인 경우 보통, .10 이상인 경우 나쁨으로 적합도를 판단한다. 위의 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K-LGB-PIM은 CMIN/DF 값이 2.591로 3 이하에 해당하고 SRMR은 .066으로 .08 이하에

표 6. 확인적 요인분석 모델 적합도

χ^2	df	CMIN/DF	CFI	SRMR	RMSEA	90% 신뢰구간	
						LOW	HIGH
627.001	242	2.591	.870	.066	.088	.080	.0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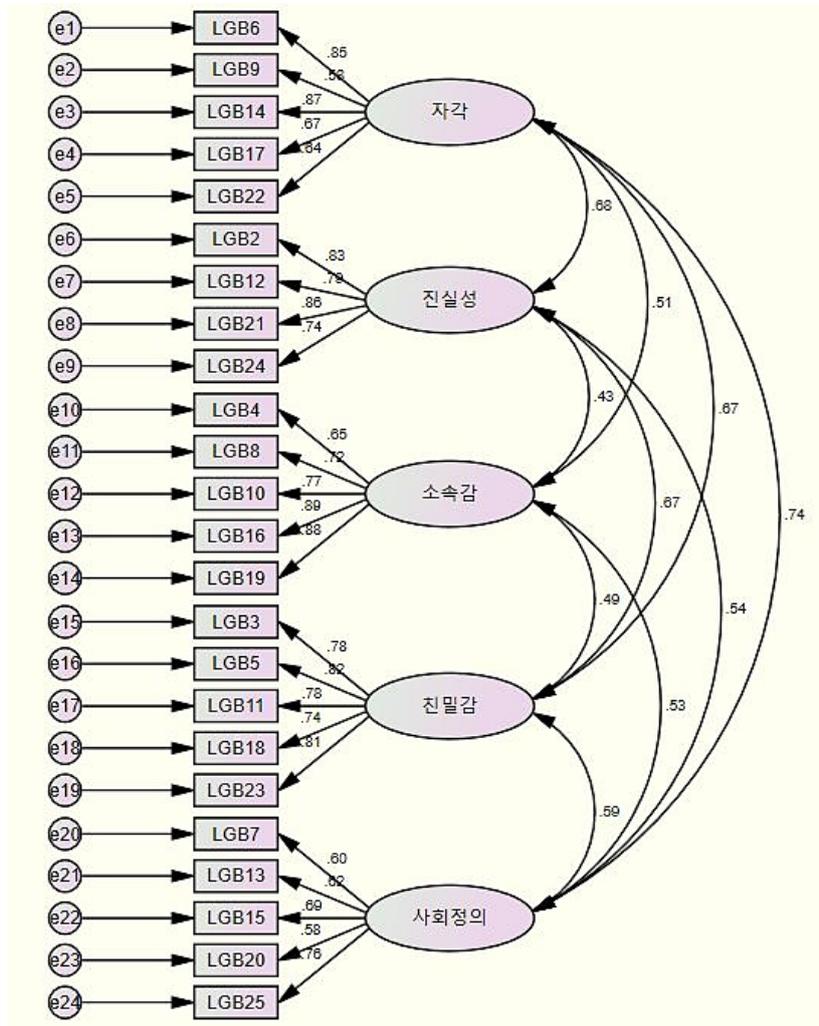


그림 2. 한국판 동성애자/양성애자 긍정적 정체성 척도(K-LGB-PIM)의 측정모형

해당하여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FI는 .87으로 기준치인 .90 보다 조금 낮은 값을 보였으며, RMSEA는 .088(90% CI=.080-.097)로 보통 수준의 적합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볼 때 각 지수마다 적합도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므로 K-LGB-PIM의 5요인 모델은 신중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나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델의 적합도를 표 6에 제시하였으며, 표준화계수 추정치를 포함한 최종 확정된 5요인 모형에 대한 측정모형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문항과 요인 간의 표준화 계수 추정치는 .58-.89로 나타났으며 모두 유의하였다.

타당도 분석

한국판 동성애자/양성애자 긍정적 정체성 척도(K-LGB-PIM)의 타당도 확인을 위해 준거 관련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준거관련타당도 중 기존의 유사한 척도와 비교하여 두 척도 간의 상관을 통해 검증되는 공준타당도와 척도가 미래의 결과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나타내는 예측타당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공준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K-LGB-PIM과 관련 척도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관련 척도들 중 첫 번째로, Riggle 등(2014)의 선행 연구와 같이 동성애자/양성애자 정체성 척도(LGBIS)의 정체성 긍정 하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K-LGB-PIM이 측정하는 ‘긍정적 정체성’과 유사한 구성개념인 ‘정체성 긍정’을 측정하고 있어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는 K-LGB-PIM의 5가지 하위척도 중 ‘진실성’과 ‘소속감’이 이론적 배경을 고려할 때 의미상 긍정적 정체성 개념에서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Erikson(1968)은 정체성을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으로 나누었는데, 주관적 측면은 개인적 정체성, 객관적 측면은 사회적 정체성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각각 본 척도에서 진실성 하위척도와 소속감 하위척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연구 1의 결과에 따르면 진실성 요인과 소속감 요인이 전체 분산 중 가장 큰 분산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실성 척도(AS)와 사회정체화 척도(SIS)를 K-LGB-PIM의 공준타당도 검증에 사용하였으며, 마찬가지로 두 척도와 K-LGB-PIM 간의 정적 상관을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LGBIS의 하위 척도 중 Riggle 등(2014)이 부정적 정체성 하위척도로 제시한 5가지 하위척도인 ‘수용 걱정’, ‘은닉 동기’, ‘정체성 불확실’, ‘내재화된 동성애 부정’, ‘고된 과정’ 역시 준거관련타당도 검증에 사용하였다. 이는 K-LGB-PIM에서 측정하는 ‘긍정적 정체성’과 반대되는 개념인 ‘부정적 정체성’에 해당하므로, 부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7. K-LGB-PIM과 관련척도 간 상관관계

	K-LGB-PIM				
	자각	진실성	소속감	친밀감	사회정의
LGBIS 정체성 긍정	.56**	.64**	.60**	.51**	.46**
진실성 척도(AS)	.43**	.53**	.28**	.41**	.30**
사회정체화 척도(SIS)	.38**	.31**	.72**	.33**	.34**
LGBIS 수용 걱정	.02	-.22**	-.16*	.01	.10
LGBIS 은닉 동기	-.21**	-.26**	-.21**	-.17*	-.14*
LGBIS 정체성 불확실	-.37**	-.62**	-.28**	-.52**	-.19**
LGBIS 내재화된 동성애 부정	-.30**	-.48**	-.29**	-.22**	-.31**
LGBIS 고된 과정	-.11	-.36**	-.22**	-.08	-.10

주. * $p < .05$, ** $p < .01$

상관분석 결과 K-LGB-PIM의 모든 하위 요인이 LGBIS의 정체성 긍정 하위척도, 진실성 척도, 사회정체화 척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특히 진실성 척도와 사회정체화 척도는 각각 K-LGB-PIM의 진실성 하위척도 그리고 소속감 하위척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여 타당한 구성개념을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K-LGB-PIM의 모든 하위 요인은 LGBIS의 부정적 정체성 하위척도 중 ‘은닉 동기’, ‘정체성 불확실’, ‘내재화된 동성애 부정’ 하위척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K-LGB-PIM은 긍정적 정체성 개념을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K-LGB-PIM과 관련 척도 간의 상관관계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준거 타당도 중 예측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기본적으로 긍정적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 좋게 느끼는 것, 긍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가지는 것이며, 자기 자신에 대해 좋게 느끼는 것은 심리적 건강과 사회적 기능을 증진시킨다(Keyes, 1998; Riggle et al., 2014). Mohr와 Kendra(2011)는 동성애자/양성애자 정체성 척도(LGBIS)의 ‘정체성 긍정’ 하위척도와 ‘삶에 대한 일반적 만족감’ 간에 정적 상관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에 대하여 긍정적 정체성이 정신적 웰빙을 예측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K-LGB-PIM과 정신적 웰빙 척도(MHC-SF) 간의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K-LGB-PIM의 MHC-SF에 대한 설명량(R^2)은 약 8.1% ($F=17.96, p<.001$)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의 긍정적 정체성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Riggle 등(2014)이 개발한 동성애자/양성애자 긍정적 정체성 척도(LGB-PIM)를 번안, 타당화하여 국내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긍정적 정체성을 타당하고 신뢰롭게 측정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전체 411명의 자료를 연구 1과 연구 2에 각각 205명, 206명씩 무선할당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먼저 연구 1에서는 문항을 번안하여 예비척도를 구성하고 문항분석을 통해 문항의 양호도를 검증한 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예비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1개 문항은 문항의 양호도와 공통성이 낮고 내용상으로도 같은 하위 요인 내 다른 문항들과 다른 요인을 측정할 가능성이 있어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최종 분석 결과 예비척도의 요인구조는 원척도와 동일하게 5요인 구조로 나타났으며 삭제된 1개 문항을 제외한 24개 문항 모두 원척도와 동일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각 요인에 적재되었다. 따라서 총 24개 문항을 최종척도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연구 2에 사용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집단과 독립적인 206명의 표본을 사용하여 문항의 양호도를 검증한 뒤 최종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함으로써 5요인 구조를 다시 한 번 검증하였다. 또한 구성타당도 및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판 동성애자/양성애자 긍정적 정체성 척도(K-LGB-PIM)의 하위척도들과 동성애자/양성애자 정체성 척도(LGBIS)의 6가지 하위척도, 진실성 척도, 사회정체화 척도와 상관을 분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에 따라 어느 정도 적합하거나 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심리 사회적 구인들을 측정하는 것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원척도의 5요인 구조가 국내에서는 완벽하게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선행 질적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긍정적 정체성의 하위 요인들은 각각 뚜렷하게 구분되기 보다는 서로 관련성을 가지고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요인들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다(Riggle & Rostosky, 2012). 그러므로 몇몇 하위 요인 간 상관성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본 척도가 5요인 구조가 아닌 다른 요인 구조를 가지는지 이후의 연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항들이 각각의 하위 요인을 나타내고 있음을 내용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안면 타당도가 높다고 판단되며 적합도 지수가 기준치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본 척도의 사용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준거관련타당도 검증 결과, 한국판 동성애자/양성애자 긍정적 정체성 척도(K-LGB-PIM)의 모든 하위 요인이 동성애자/양성애자 정체성 척도(LGBIS)의 정체성 긍정 하위 척도 및 진실성 척도, 사회정체화 척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LGBIS의 부정적 정체성 하위척도 중 은닉 동기, 정체성 불확실, 내재화된 동성애 부정 하위척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임을 통해 K-LGB-PIM이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긍정적 정체성을 타당하게 측정하는 척도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Riggle 등(2014)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LGBIS의 정체성 긍정 하위척도와 정적 상관을 나타낸 것을 통해 LGBIS의 정체성 긍정 하위척도는 긍정적 정체성의 여러 차원

들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K-LGB-PIM은 긍정적 정체성의 다양한 측면을 보다 충실하게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준거관련타당도 중 예측타당도 검증을 위한 단순회귀분석 결과, K-LGB-PIM이 정신적 웰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여러 하위 요인들이 정신적 웰빙을 구성하는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여러 선행연구들과 맥락을 함께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의 긍정적 정체성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번안하고 타당화하여 국내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를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국내 성소수자 연구들은 성소수자 정체성을 부정적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해왔으며 긍정적인 것을 단지 부정적인 것의 결여로 가정하여 다른 정신건강 관련 변인과의 관련성을 연구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부정적 정체성과 다른 축으로 구별되는 긍정적 정체성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어 긍정적 성소수자 정체성 연구의 기초가 됨으로써 성소수자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국내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 자체도 성소수자의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 중 하나로서 기존에 성소수자를 부정적인 맥락에서 바라보았던 패러다임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성소수자 긍정적 정체성의 다양한 주제와 차원들에 대해 다룸으로써 이러한 긍정적 정체성의 여러 차원들이 다양한 안녕감의 주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타당화 된 한국판 동성애자/양성애자 긍정적 정체성 척도(K-LGB-PIM)는 연구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상담의 실제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본 척도는 성소수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측정할 뿐만 아니라 각 하위 척도와 문항들을 활용함으로써 성소수자 정체성과 관련한 내담자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상황에 대해 파악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내담자의 긍정적 정체성에 기여하는 강점과 삶의 자원들을 발견하는 등 상담 과정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다차원적 척도로서 성소수자 정체성의 다양한 측면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의 여러 장면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의 국내 성소수자 관련 척도 다수는 레즈비언과 게이, 즉 동성애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본 연구는 양성애자를 포함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양성애는 동성애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성향 혹은 동성애자로서 받게 될 비난과 차별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식되어 독립적인 하나의 정체성이 아닌 것으로 평가절하 되기도 하며,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의 사이에서 양쪽은 좋은 면만을 취하려는 기회주의적 행위라고 비난받고 동성애자 집단으로부터 불신의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박은실, 2010; 윤가현, 1997). 이는 성적 지향이 한쪽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경직된 정체성 인식에 의한 것으로 성소수자 집단 안에서도 양성애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나영정 외, 2014). 그러나 성소수자 집단의 하위 집단 간에 차이는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후의 연구에서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집단의 긍정적 정

체성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성소수자 표본과 관련하여 트랜스젠더 집단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적지향의 축과 성별정체성의 축을 구별하여 두 집단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트랜스젠더 집단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실제 성소수자에 대한 국내외 연구 다수는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구분하여 다루었다(이호림, 2015). Riggle과 Mohr(2015)는 동성애자/양성애자 긍정적 정체성 척도(LGB-PIM)에 이어 트랜스젠더 긍정적 정체성 척도(T-PIM)를 개발하였는데,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와의 차이가 연구에 반영되었다. 특히 자각 하위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대해 내성하는 것이 성적 지향과 비교할 때 과정상 차이가 있음을 암시한다(Riggle & Mohr, 2015). 국내에서 이에 대한 타당화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보다 넓은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의 표본은 성별과 연령에 있어 여성과 20대에 치우쳐있다. 나영정과 정현희(2015)는 성소수자 대상 연구에서 표본의 대표성 문제를 다루는 어려움에 대하여 성소수자의 모집단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유동적이고 복잡한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3000명 이상의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욕구조사 보고서에서도 여성이 58.3%, 남성이 27.8%로 여성 응답자가 많았고 연령에서는 10대와 20대가 70%를 차지하였으며, 갤럽에서 12만 명에 대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 중 3.4%가 성소수자라는 통계를 내놓았을 때에도 유사한 여성 편중, 연령 편중이 나타났

다. 이에 대해 나영정과 정현희(2015)는 ‘모집단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성별, 연령의 편중을 편중이라고 속단할 수만은 없다’고 언급하며 성소수자의 모집단이 일반적인 인구학적 분포와 다를 수 있다고 추론하였다. 따라서 성소수자 연구에 있어 모집단과 표본에 관련한 추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척도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긍정적 정체성의 주제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원칙도 개발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던 Riggle과 Rostosky(2012)의 질적 연구에서는 총 8가지의 긍정적 정체성 주제가 제시되었는데, 척도 개발 과정에서 5가지 주제로 축소되면서 국내 성소수자들에게 의미 있는 주제들이 문화적 차이에 의해 최종 척도에 반영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Riggle과 Rostosky가 제시하지 않았던 또 다른 주제들이 국내에서 발견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국내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긍정적 정체성의 주제들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언급된 다양한 제언들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척도를 꾸준히 검증하고 보완한다면 성소수자의 긍정적 정체성 및 정신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와 상담 실제에서 본 척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김남걸 (2001). Likert 척도 개발을 위한 문항선정 방법의 비교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연 (2013). 대인관계 심리학적 모형으로 본 동성애자의 자살.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경, 권정혜 (2004). 동성애 관련 스트레스가 남성 동성애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4), 969-981.

김진이 (2016). 가족의 태도가 성소수자의 커밍아웃 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질적연구.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나영정, 김지혜, 류민희, 이승현, 장서연, 정현희, 조혜인, 한가람, 성적지향 성별정체성법정책연구회 (2014).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최종보고서. 서울: 친구사이.

나영정, 정현희 (2015). 성소수자 인구, 커뮤니티를 그리는 작업에서 마주치는 문제들 -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를 중심으로. 여/성이론, 32, 92-108.

박수현 (2010). 동성애자의 소수자 스트레스와 대처 전략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의 차이.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은실 (2010). 양성애 여성의 횡단적 주체성 형성과 도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의주 (2012). 남성 동성애자의 내재화된 동성애혐오와 심리적 안녕감, 드러내기 간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은정, 유영권 (2004). 기독교 남성동성애자의 스트레스와 적응과정: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825-842.

서영석, 이정립, 차주환 (2006). 성역할태도, 중

- 교성향, 권위주의 및 문화적 가치가 대학생의 동성애혐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1), 177-199.
- 성한기 (2001). 한국판 사회정체화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3), 33-48.
- 신승배 (2013). 한국 동성애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사회연구*, 33(1), 380-416.
- 엄명용, 조성우 (2005). 사회복지실천과 척도개발: 표준화된 척도를 중심으로. 서울: 학지사.
- 우사라, 유성경 (2017). 상담자의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동성애자 상담 유능감에 따른 임상적 판단 및 반응.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2), 311-334.
- 윤가현 (1997). 동성애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이순목 (2000).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이향숙 (2011). 진실성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2(5), 1561-1577.
- 이호림 (2015). 소수자 스트레스가 한국 성소수자(LGB)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민경 (2014). 남녀 동성애자의 내면화된 성적 낙인 척도 타당화 연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영진, 고영건, 신희천, 조용래 (2012). 정신적 웰빙 척도(MHC-SF)의 한국어판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369-386.
- 탁진국 (2007). 심리검사 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해밀튼 (2013). 대한민국 20대 남성의 성적 정체성과 퀴어성적 연구: 양성애자 정체성 및 수행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1). Definition of Terms: Sex, Gender, Gender Identity, Sexual Orientation. Retrieved from <http://www.apa.org/pi/lgbt/resources/guidelines.aspx>
- Bauer, J. J., McAdams, D. P., & Pals, J. L. (2008). Narrative identity and eudaimonic well-be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9(1), 81-104.
- Brady, S., & Busse, W. J. (1994). The gay identity questionnaire: A brief measure of homosexual identity formation. *Journal of Homosexuality*, 26(4), 1-22.
- Cass, V. C. (1979). Homosexuality identity formation: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Homosexuality*, 4(3), 219-235.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Y: Norton.
- Gorsuch, R. L. (1983). *Factor Analysi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Harrison, T. W. (2003). Adolescent homosexuality and concerns regarding disclosure. *Journal of School Health*, 73(3), 107-112.
- Hu, L. T., & Bentler, P.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Keyes, C. L. M. (1998). Social well-be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1(2), 121-140.
- Keyes, C. L. M. (2002). The mental health continuum: From languishing to flourishing in lif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3(2), 207-222.

- Lingiardi, V., Baiocco, R., & Nardelli, N. (2012). Measure of internalized sexual stigma for lesbians and gay men: A new scale. *Journal of Homosexuality*, 59(8), 1191-1210.
- Martin, J., & Dean, L. (1987). *Ego-dystonic homosexuality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 Mayfield, W. (2001). The development of an internalized homonegativity inventory for gay men. *Journal of Homosexuality*, 41(2), 53-76.
- Mohr, J. J., & Fassinger, R. E. (2000). Measuring dimensions of lesbian and gay male experienc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3(2), 66-90.
- Mohr, J. J., & Kendra, M. S. (2011). Revision and extension of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sexual minority identity: The lesbian, gay, and bisexual identity sca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2), 234-245.
- Philips, J. C., Ingram, K. M., Smith, N. G., & Mindes, E. J. (2003). Methodological and content review of lesbian-, gay-, and bisexual-related articles in counseling journals: 1990-1999.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1(1), 25-62.
- Reich, J. W., Zautra, A. J., & David, M. (2003). Dimensions of affect relationships: Models and their integrative implication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7(1), 66-83.
- Riggle, E. D. B., & Mohr, J. J. (2015). A proposed multi factor measure of positive identity for transgender identified individuals.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2(1), 78-85.
- Riggle, E. D. B., Mohr, J. J., Rostosky, S. S., Fingerhut, A. W., & Balsam, K. F. (2014). A multifactor lesbian, gay, and bisexual positive identity measure (LGB-PIM).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1(4), 398-411.
- Riggle, E. D. B., & Rostosky, S. S. (2012). *A Positive View of LGBTQ: Embracing Identity and Cultivating Well-being*.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 Schneider, M. S., Brown, L. S., & Glassgold, J. M. (2002). Implementing the resolution on appropriate therapeutic responses to sexual orientation: A guide for the perplexed.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3(3), 265-276.
- Troiden, R. R. (1989). The formation of homosexual identities. *Journal of Homosexuality*, 17(1), 43-74.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Thousand Oaks, CA: Sage.
- Wood, A. M., Linley, P. A., Maltby, J., Baliousis, M., & Joseph, S. (2008). The authentic personality: A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ceptu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authenticity sca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3), 385-399.

원고접수일 : 2017. 11. 10
수정원고접수일 : 2018. 01. 19
게재결정일 : 2018. 02. 06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Lesbian, Gay, Bisexual Positive Identity Measure

Ji-Yoon Jang

Hyun-Nie Ahn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Lesbian, Gay, Bisexual Positive Identity Measure (K-LGB-PIM). The LGB-PIM was developed by Riggle, Mohr, Rostosky, Fingerhut & Balsam(2014) to measure the positive lesbian, gay, and bisexual (LGB) identity. To validate the Korean LGB-PIM, item translation, item analysis,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were conducted. Identical to the original scale, five factors were extracte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supported the factor structure of the K-LGB-PIM and all five factors showed adequate internal consistency. Criterion validity was good with other identity related scales (LGBIS, AS, SIS) as well as the well-being related scale (MHC-F). In conclusion, the K-LGB-PIM is a valid measure of positive lesbian, gay, and bisexual identity for utilization with the Korean population. Implications, practical use,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Lesbian, Gay, Bisexual, Positive Identity, LGBT